

화순군, 여성 농업인 맞춤형 정책 ‘호평’...삶의 질 향상

농작업·가사·출산 부담은 줄이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안정적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추진 할 것”

화순군이 농촌·농업 인구와 인력의 ‘여성화’에 따른 여성 맞춤형 정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가 도우미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농업 경영주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과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녀 출산에서 적기 영농, 문화 향유까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군은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농작업 가중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35대)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귀농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농가당 1대 공급을 원칙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소형 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의 필수 조건으로 해 여성농업인의 안전, 신체상·재산상 손실 보상 등에 대비했다.

2017년부터 군은 문화생활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

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769명에게 1인당 10만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였다. 올해 지원대상은 288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호응도가 높다.

◇ 마을공동급식, 농가 도우미 지원...가사·출산 부담 줄여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5년부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시작했다.

마을당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11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 시설, 인력 부족 등으로 참여

하지 못하는 마을은 ‘반찬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소외당하는 마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41개 마을이었던 지원 대상 마을이 2020년 106개로 크게 늘었다.

농가 도우미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 부담도 경감되고 있다. 농가 도우미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해소하고 보육 부담을 줄여 여성농업인 모성 보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후 90일 중 최대 70일 지원받을 수 있다.

◇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각종 용자 지원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육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 군은 만 50세 미만 농업인의 창업자금 지원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 예정자부터 독립 경영 10년 미만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을 매년 선발한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개인당 연리 2%로 최대 3억 원까지 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20% 이상인 신청자를 우선 추천하도록 규정해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 사회, 여성농업인이 잠재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이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에 주상절리가”

영천리 장성공원 경관폭포 ‘주목’...새 랜드마크 기대



장성공원이 수려한 경관폭포와 아름다운 조경을 갖추며 새롭게 태어났다.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장성공원은 읍시가 지 내의 유일한 공원이다.

1977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4만3862㎡(1만3291평)에 달한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의 나무 5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운동시설과 정자, 어

린이생태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여가 생활 장소와 쉼터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열사장성 의적비, 6·25참전용사기념탑 등이 있어 매년 각종 역사적인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격한 경사면을 지녀, 지난 2015년 공원 사면의 사면 일부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6년, 장성공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들어가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주변 경리 작업을 실시 중이다. 군은 420m의 급경사 구간에 식생블록 등을 쌓아 붕괴 위험을 차단했다. 또 공원 전면부 경사면에는 경관폭포를 조성했으며 주변 운동기구와 계단, 산책로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했다.

특히, 웅장한 규모(24m×13m)를 지니고 있는 경관폭포는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뜻하는 주상절리와 황룡강의 맑은 정기를 상징하는 폭포로 구성해, 황룡강과 함께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에 조성을 마친 장성공원 경관폭포에는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불여장성’의 전통과 열로우시 티 장성의 발원지인 황룡강의 물줄기가 형상화되어 있다”면서 “장성공원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나아가 장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군 “곡성창업동지에서 창업정보를 한눈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곡성군이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곡성창업동지’를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곡성군과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창업 교육과 지역업체 및 제품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플랫폼은 홈페이지(<http://gokseongnest.com>)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페이스북

(blog.naver.com/gokseongnest), 블로그(blog.naver.com/gokseongnest)도 개설해 다양한 채널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맞춤형 창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톡채널(곡성창업동지)도 문을 열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추진

자격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적발 시 강력 조치

담양군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암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에 이어 고서 보춘지구 개발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

적인 상승으로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자격증 불법 대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응 조치다.

이에 군은 매분기별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부동산 민원 발생 및 과열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해 무

등록 영업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남 다 른 여 행

범 상 속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